

F. Kafka : “流刑地에서”(In der Strafkolonie) 研究

권 오 상*

목 차

- | | |
|------|---------|
| I. | 서 론 |
| II. | 전제정치 세계 |
| III. | 현대 사회 |
| IV. | 결 론 |

I. 서 론

“이 마지막 단편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 단편은 고통스러운 내용일 뿐 아니라, 차라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 그리고 특히 나의 시대가 공히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Br150)

Kafka가 Kurt Wolf에게 보낸 이 글은 - 1912년 작품인 “Der Verschollene”를 제외한다면 - 작가의 첫 번째 사회철학적 이야기인 본 작품에서 해설되어야 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의 역사성을 띤 교훈적 이야기인가, 아니면 ‘주관적인 알레고리’인가, 또는 상징적인 ‘사

*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교수

회소설'인가, 아니면 의심쩍은 私的 이야기인가(이 사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사회적인 징후나 아니면 언급될 이야기의 전체를 대신하는 일부분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이한 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일반적인 역사적 시대를 대비시켜놓고 있는 것일까?

본 작품에는 부분적으로 파라독스하고 다의적이기도 한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과 그리고 '사적' 몽상 속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1914년 당시에 체험했던 시대의 形象 뿐 아니라 남성 우위의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유태인 사회의 起源들에 대한 회상들이 다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작품에는 본질적으로 몇 개의 연관된 세계가 등장하고 있다. 중세의 형사소송법과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총체적 즉결처단법에서 유래하는 專制政治의 세계, 특히 전기로 작동되는 기계의 형상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 사적 가족적 심리학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신학적인 세계가 그것들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세계들을 벗어나는 내용들도 많다. '유동적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작품은 Umberto Eco가 자기의 "Das offene Kunstwerk"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처럼¹⁾, 행간들을 읽어서 개별적인 것들을 연관되도록 짜맞추는 일은 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말한 몇 개의 세계 중에서 전제정치의 세계와 현대의 사회에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고찰해보겠다.

II. 전제정치의 세계

'옛 사령관' 이 이 유형지의 법체제와 "피고에게 그가 위반한 명령을 선고 내지 처벌"로서 "육체"에 새기는 기계의 고안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군인, 판사, 안출자, 화학자 그리고 제도사"(SE103)였다. 여행자가 도착했을 때 속죄되어야 할 범죄행위는 "대위"의 "당번병"이 출입문 앞에서 시간마다 해야할 대위에 대한 인사를 - 이것은 존경의 맹서이며 동시에 "봉사"와 "파수"의 준비 표시이기도 하다 -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것이다(SE105). 또 그를 채찍질하는 대위에 대해 "회초리를 던지지 않으면 당신을 잡아먹겠어."(SE105)라는 위협 역시 이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모든 선고들이 그랬듯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1) Umberto Eco: Das offene Kunstwerk, S. 27 ff.

“그가 입은 상처들”을 근거로 그가 해독해야 할 선고내용(SE108)은 “너의 상관들을 존경하라!”(SE104)이다. 피고는 자기에게 내려진 선고내용을 알지 못 하며, 또 그가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처형이 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 한다. 재판절차가 없고 변호도 없다. 왜냐하면 “죄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SE104)이다. 재판판원이 많지 않다. “장교”인 동시에 “판사”가 專決로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작고한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는 권력이 입법, 기소, 변호, 판결 분야들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옛날의 독재체제, 환언하면 중세의 마력을 지닌 성직자 신분의 영주국가 그리고 절대주의 국가와의 관련성이 나타나 있다. Ingo Seidler 역시 처형기구에서 “완전무결한 절대주의”²⁾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Michel Foucault가 “Überwachen und Strafen”에서 기술했던 것과 같이³⁾ 본 작품에서는 많은 것이 “고문의 축제”를 암시하고 있다. 즉 독재자에 의해 지시된 힘으로서의 법체계의 시위, 전문용어들을 사용한다면 변호와 증거절차가 없는 육체적 고통의 통고와 실행, 낙인 혹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신체부위들의 파괴, 범행자의 제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변적이고 타산적인 현대 소송절차는 上述의 형법과는 대조를 이룬다.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개선된 유익한 구류, 그리고 예방과 사회복귀 등을 고안한 정치적 경제학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주의의 형법이 지닌 여러 특성들은 현대 민주주의들이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독재정치와 전체주의 속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작품 “In der Strafkolonie”는 이와 같은 특성들과 계속해서 연관지워지고 있다. Benjamin과 Adorno는 이것들을 Kafka가 미리 예상한 징후라고 말하고 있다.⁴⁾ W. H. Sokel에 의하면 “In der Strafkolonie”는 파시즘적, 민족주의적, 스탈린주의적 테러리즘, 즉 사회적 새디즘과 마조키즘을 선취하고 있다.⁵⁾ W. Biemel은 본 작품에서 양차대전 전의 총체적 현상들을 생각하고 있으며⁶⁾, B. Nagel은 본 작품을 좀 더 확대해석해서 전체주의의 체계와 책략들의 테러리즘에 연관을 시키고 있고⁷⁾, H. Richter는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性倒錯症 내지 새디즘이라고 말한다.⁸⁾ K.

2) Vgl. Bert Nagel: Franz Kafka. Aspekte zur Interpretation und Wertung, S.245 f.

3)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S. 44 f.

4) Walter Benjamin: Benjamin über Kafka, S. 130 f.; Theodor W. Adorno: Aufzeichnungen zu Kafka, S. 266.

5) Walter H. Sokel: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S. 114 ff.

6) Walter Biemel: Philosophische Analysen zur Kunst der Gegenwart, S. 18 f.

7) Bert Nagel: Franz Kafka, S. 270.

8) Helmut Richter: Franz Kafka. Werk und Entwurf, S. 120.

Wagenbach는 시대를 제한해서 Kafka가 알고 있는 流刑地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빠리의 집단거주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뉴칼레도니아의 섬들, 드라이푸스가 수용된 악마의 섬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수용되었던 시베리아 등이 이것들이다.⁹⁾

법(Gesetz)은 계약과는 달리 제3자에게도 통용된다.¹⁰⁾ 법은 K.가 성에 도착하고, Josef K.가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하고, Karl Roßmann이 그것을 알게 될 때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법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법은 迷路의 領域으로서, 그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유죄이며 그 법을 대충 알기도 전에 우리는 마치 외디푸스왕 처럼 벌써 그 경계선들을 넘어서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벌을 통해서는 법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 하며, 이 죄와 벌은 법을 여전히 불확실 상태로 남겨 놓는다. 이 상태가 불확실한 만큼 여기에 상응해서 벌은 그 만큼 최고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다. Kafka는 이와 같은 세계를 기술할 줄 알고 있었다.”¹¹⁾

G. Deleuze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Kafka의 체험을 上述한 것 처럼 해설하고 있다.

여기에 상응해서 “우리들의 법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법들은 우리들을 지배하는 소수 귀족집단이 소유한 비밀이다.”라고 “Zur Frage der Gesetze”에서는 언급되고 있다.(SE314)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은 성문법 배후에 있는 논리성을 말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즉 그것의 응용과 변경의 ‘법칙’ - 이것을 판단하여 인식하는 데는 수 세기의 관찰이 필요하다 - ,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설의 조건들, “Fürsprecher”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 저기에서의 소송제기”에 필요한 “범죄구성요건”(SE322)의 구조, 실제적이고 이념적인 유형의 비법률적인 규범들, 불문율인 모든 힘의 관계와 권력의 지시들¹²⁾, 예상불능의 요소들 그리고 개인에게 닥치는 사고들 내지 운명들, 즉 사회적 규범들과 관계하고 있는 우연의 요소들이 법인 것 처럼 보인다.

9) Klaus Wagenbach(Hrs.): Franz Kafka. In der Strafkolonie. Eine Geschichte aus dem Jahre 1914, S. 65 f.

10) Gilles Deleuze: Sacher-Masoch und der Masochismus, S. 250.

11) Ebd., S. 243.

12) Michel Foucault: Sexualität und Wahrheit. Der Wille zum Wissen, S. 113 - 117.

“In der Strafkolonie”의 “피고”는 이와 같은 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는 선고를 “그가 입은 상처들”(SE108)로 해독하지 못하는가? Deleuze는 “In der Strafkolonie”에서는 처벌이 “선고와 규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¹³⁾ 그렇다면 그 역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Der Prozeß”의 유명한 텍스트들(그리고 단편들인 “In der Strafkolonie”, “Beim Bau der Chinesischen Mauer” 등)은 법을 내용도 없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도 없는 완전히 비어 있는 형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선고로서만 나타나며, 그것은 오직 형벌에서만 인식될 수 있을 뿐이다.”¹⁴⁾

비어 있는 형식으로서의 이 법은 인식될 수 없는 것인가? 또는 그것은 형벌과 선고에서 인식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모순은 우리가 두가지 형식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즉 사전 인식과 사후 인식, 환언하면 규범에 대한 지식과 단지 개인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 규범에 대한 사전지식은 Kafka에서는 거의 없다. 현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 내지 힘의 여러 현실들과의 지속적인 충돌만이 이 “법”을 감지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과정은 “Der Verschollene”에서 처럼 사회화과정에서의 여러 충돌과 함께 시작하며, 그리고 이 과정은 다른 두 장편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In der Strafkolonie”에서는 그러므로 12시간 동안 형벌로서의 선고, 선고로서의 형벌을 “몸에 새기는 과정” 역시 일생 동안 매일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원칙과의 반복되는 충돌들을 비유적인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어찌 되었든 “피고”에게는 사후의 “인식”만 존재할 뿐이다. 나중에 그는 그의 자연성이 감내할 수 있는, 그의 자연적 존재의 한계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 전체는 잠을 잠으로써 “인사”를 하지 않은 것(SE105)이기 때문이다.

Karl Roßmann이 Occidental 호텔에서 “허가”없이 잠시 자기의 승강기를 떠났을 때(A138) 이것이 승강기 규정에 위배되듯이,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떤 법률관계들, 즉 그것들의 실질적 존재만으로 정당화되는 그런 법률관계들 안에서는 불법행위이다. 진

13) Gilles Deleuze und Felix Guattari: Anti-Ödipus, S. 273.

14) Gilles Deleuze und Felix Guattari: Kafka. Für eine kleine Literatur, S. 60.

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법을 만드는 것이다.¹⁵⁾ 강제력이 법의 수단인 아니라, 법이 강제력의 수단으로 된다. Foucault에 의하면 “법”은 다양한 강제력의 관계들을 단지 포개어 덮어놓고 있을 뿐인 “최종적인 형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¹⁶⁾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력관계들과 강제력의 奔流 앞에 내맡겨져야만, 이것들을 ‘느낄 수’ 있게되고,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Kafka가 “법”이란 이름 아래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Foucault의 생각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단어는 -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고, 비본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법률적인 것의 불문물적 토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의 몸에 새겨져서 엄하게 가르쳐져야 할 “너의 상관들을 존경하라!” (SE104)는 선고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권위가 법을 결정한다는 Hobbe의 명제를 빈정대는 투로 다르게 표현한 것 처럼 보인다. 단지 형벌 속에서만, 즉 강제적 상황들의 체험 속에서만 법은 나타나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은 중세와 마찬가지로 근세에도 통용되고 있는데, 근세에는 법률적인 것이 불문물적인 규범들, 규율들 그리고 감시들과 겹쳐지고 있다.¹⁷⁾ 그러나 특히 독재자의 형상, 증명절차 및 변호가능성의 전무, “유죄”의 “확신”(SE104), 전적으로 육체를 표적으로 삼은 형벌 그리고 파멸을 목표로 육체에 가해지는 보복 등은 중세와 절대주의 시대에 독재자의 권력의 잔치 내지 시위였던 공개적인 “고문의 축제”를 연상케 하고 있다.¹⁸⁾ 고문은 죄의 자백을 얻어내야만 했다.¹⁹⁾ 일종의 “정치적 신체구조학”이 정확하게 암호화된 낙인과 처벌과 처형을 명령했다.²⁰⁾ 형법은 시간과 생산적 효과로 측정된 동등한 형벌의 양이 아니라 형벌의 질을 규정했었다.

“In der Strafkolonie”에서 기록의 비유 - 기계의 “도안가”(SE103)의 기록, “옛 사령관”에 의해 고안된 글씨들(SE118)의 비유 - 는 분명히 고문과 언어, 육체와 법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Nietzsche는 인류의 선사시대와 인류의 “기억술” - 이것의 생성은 “결코 피와 고문과 희생 없이는”(“첫 번째 공물”, “거세 행사들”, “소름끼치는 의식형태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

15) Thomas Hobbes: Leviathan, S. 322.

16) Ebd., S. 113.

17) Ebd., S. 172.

18)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S. 44 f.

19) Ebd., S. 57.

20) Klaus Wagenbach: a. a. O., S. 89.

록해 놓고 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그것이 기억 속에 남도록 피부를 태워 기록한다.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라야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다.”²¹⁾ 인종학자인 P. Clastres는 Nietzsche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즉 소위 원시시대의 여러 부족들에서는 어떤 부호들을 문신하는 일, 그것들을 피부를 태워 기록하는 일, 피부 속에 새겨넣는 일등은 어떤 사회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부의 상처들은 피부에 새겨넣은 원시시대의 법의 文句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피부에 새겨진 기록인 셈이다.”²²⁾ 이렇게 해서 “신체”가 “기억”으로 된다. 즉 “그 기록은 법을 위해 존재하며, 법은 그 기록 속에 기속하고 있는 것이다.”²³⁾ Fratzter가 인류의 “최초의 법”이라고 불렀던 것, 즉 근친상간의 터부 역시 고통으로 가득찬 성년식들과 피부 속으로의 기록들을 통해 확정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²⁴⁾ 성년식들에 대한 Lévi-Strauss의 기록이 우리들의 추측을 확인해주고 있다.²⁵⁾

Clastres는 그의 저술들에서 Kafka의 “In der Strafkolonie”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선사시대의 피부기록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다른 형식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²⁶⁾ Clastres에 의하면 원시인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우선 “의미구별의 최소 단위”를 피부에 새겨넣는 일이며, 말이나 존재하지도 않는 표음문자를 새겨넣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록이 우선 느슨해진 과거의 독재적인 법, 즉 국가의 법을 의미한다면 이들 사회들은 사실 기록이 없는 사회들인 것이다.”²⁷⁾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들”에서는 말하자면 계급적인 사회체계, 즉 수탈사회 그리고 과잉노동과 지배에 근거한 사회의 저지, “불평등을 야기하고 보증하는 사회”의 저지가 중요했다.²⁸⁾ 그러므로 신체에 기록된 표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너는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더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권력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는 안되며 복종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도록 하라.”²⁹⁾

21) Friedrich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in: drei Bänden, S. 802.

22) Pierre Clastres: Staatsfeinde. Studien zur politischen Anthropologie, S. 178.

23) Ebd., S. 169.

24) Jacques Lacan: Die Familie, in: Schriften III, S. 65.

25) Claude Lévi-Strauss: Mythologica I. Das Rohe und das Gekochte, S. 57 ff.

26) Pierre Clastres: a. a. O., S. 169 f.

27) Pierre Clastres: a. a. O., S. 169 f.

28) Ebd., S. 178.

29) Ebd., S. 177.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전제정치에서는 顛倒된다. 전제정치는 아스텍, 마야, 인카인들에게서 나타났고 또 우르, 멤피스 그리고 크노소스에서도 발생했었다.³⁰⁾ 이제 법이 돌, 널빤지, 주화 그리고 종이를 통해 알려지고 피라미드 형 권력의 주변에 까지 전파된다. “옛 사령관”의 기록은 이와 같은 법과 그것이 기록된 모자이크의 널빤지를 지적하는 것 처럼 보인다.

형벌은 이제 이와 같은 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 형벌에는 “기억술이 말아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형벌은 용이주도한 계산이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고통”은 죄과 내지 그로 인해 야기된 손해의 “等價物”로 간주되기 때문이다.³¹⁾ “가혹하면서도 고통을 수반케 하는 조치들은 인간을 혼련시키는, 즉 그의 삶에 표적을 남겨 그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만드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³²⁾ 그러나 계급국가에서는 해결불능의 예속관계와 끝없는 조세의무가 존재하고, 그 결과 조직에 대한 죄가 독재군주에 대한 죄로 바뀌게 되며, 이 죄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 바퀴 장치”에 연결되어, 이 장치가 죄를 무한대로 변화시킨다.³³⁾ “너의 상관들을 존경하라”(SE104)는 그러므로 독재정치의 최고의 명령인 것이다. “죄는 언제나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명제는 이런 점에서 “죄”의 본질은 “무한의 채무관계”이며, 그러므로 결국 인식될 수도 없고 “알려져 있지도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In der Strafkolonie”의 피고의 몸에 기록되는 것은 정해진 죄에 대해 가해지는 정해진 처벌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일반적인 “법”으로 보여진다 (이 법은 처벌위협과 처벌에 대한 심적 예상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삶(존재)이 바로 ‘죄’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유형지’의 피고의 실수는 평소에 소홀이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다. “Schlag ans Hoftor”에서도 사소한 몸짓이 채무자로 하여금 평생 동안 옥살이를 하도록 하고 있다.(SE300)

처벌이 손해와 等價인 方程式은 피상적인 등가교환을 모방해서 만든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상적인 平等 보다 기본적인 不平等이 먼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죄의 개념이 등가교환 개념 보다 나중에 나타났다가 보다는 먼저 나타난 것 처럼 보인다.³⁴⁾ 이 역설적이고 신비스런 죄의 개념이 삶(존재)이 죄라는 비합리적인 개념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비합리적인 개념은 유일신론적 神觀과 王

30) Ebd., S.195 f.

31) Friedrich Nietzsche: a. a. O., S. 805.

32) Gilles Deleuze und Felix Guattari: Anti-Ödipus, S. 244 f.

33) Ebd., S. 247.

34) Ebd., 237 f.

國은 신의 恩寵이라는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³⁵⁾ “In der Strafkolonie”에서는 이들 모든 사항들이 고려되어 있다. “언제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죄”는 1) 자신이 봉사해야 할 대위에게 피고가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것, 2) 이 체제와 기계를 만들어낸 장본인(전 사령관)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 3) 그의 대리인들(장교와 현 사령관)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들을 나타낸다. 여기에 부응해서 “Zur Frage der Gesetze”의 草稿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한 남자는 황제가 신의 혈통이라는 것을 의심했다. 그는 황제는 당연히 우리들이 섬기는 최고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제가 지닌 신의 사명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이 사명은 그에게 명백한 것이었다. 단지 신의 혈통만을 의심했던 것이다. 이것은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碎波가 물방울 하나를 육지로 뿌린다 해서 그것이 바다의 영원한 파도현상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파도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H236)

법은 손을 댈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감각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실질적인 권능을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Beim Bau der Chinesischen Mauer”가 보여주듯이 상징적인 기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황제 그 자신은 세계 건물의 모든 층을 뚫고 올라갈 만큼 거대하다.(SE295) 그러나 살아 있는 황제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소파에 누워 있다.(SE295) 모든 생각이 황제에게 모아져 있지만, 지금의 황제는 아니다.(SE295) 오래 전에 사망한 황제가 우리 마을들에서는 왕위에 오르게 된다 (...).(SE296) 황제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³⁶⁾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In der Strafkolonie”에서 실제 또는 상징적으로 몸에 죄과가 새겨짐으로써 이중적인, 즉 세속적 인식과 종교적 인식이 야기되는 것이다. “6시간 후에는 그 남자는 정말로 조용해지고 이 어리석은 자에게 悟性이 나타난다. 이것은 눈 주위에서부터 시작된다.”(SE108) 6시간 동안 ‘인식’과 ‘황홀’(SE112) 그리고 ‘구원’(SE121)의 과정이 지속된다. 이 인식이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감각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세계까지 미친 압도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

35) Ebd., S. 278.

36) Gilles Deleuze und Felix Guattari: Kafka, Für eine kleine Literatur, S. 106.

다.

考古學은 현재의 土臺였던, 역사에서의 기록 이전의 것, 즉 “현재의 처벌체제”(H235)의 무의식적 근원을 들추어내고 있다. “Das Schloß”에서 봉건체제가 관료체제의 토대가 되었듯이 전 사령관의 체제는 진보적인 현 사령관 체제의 토대가 된다. 과거는 현재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즉 전통적 카리스마적 통치형태는 합법적인 것의 이면에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다.³⁷⁾ “탐험가”는 피고의 죄가 아니라 “재판절차의 불공정성과 처형의 비인간성”을 “의실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SE109), 그러나 그의 強度가 약한 항의와 그곳으로 부터의 逃走는” 옛 사령관이 정해진 몇 년 후에 부활하리라”(SE122)는 “예언”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20세기의 총체적 체제와 좋지 않은 책략들이 실제로 의미했고 또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옛 권력들의 지속적 영향력 뿐 아니라 그것들의 갑작스런 폭동적인 “부활” 역시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III. 현대 사회

F. Ferrer의 “Die moderne Schule”에는 “피가 나면서 글자가 새겨진다”라는 한 속담이 소개되고 있다.³⁸⁾ M. Foucault는 18세기에 현대 규율사회의 중심지들이던 학교와 병원에 처벌규정이 도입된다면서 “기대했던 개선효과는 속죄와 참회에서 유래한다기 보다는 차라리 훈련체제에서 나온다.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훈련이다.”³⁹⁾라고 말하고 있다. 개개인에 대한 사적 판단, 조사, 그의 경력의 문서화 등으로 거대한 “서류의 힘”이 만들어진다.⁴⁰⁾ 신체의 상처와 고문들은 沮止標識, 調節信號 그리고 象徴들로 대치된다.⁴¹⁾ 글자가 신체 혹은 상술한 방식으로 생성된 영혼동에 새겨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증명서, 기록, 문서와 자료가 적인 카드들이 개개인을 분류해서 관료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In der Strafkolonie”에서 신체에 글자를 새기는 재판절차는 비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역시 상술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개개인의 사회편입과정은 말하자면 포괄적인 예방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

37) Max Weber: Die Typen der Herrschaft, S. 167 ff.

38) Zitiert bei Klaus Wagenbach: a. a. O., S. 89.

39)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S. 232.

40) Ebd., S. 244.

41) Ebd., S. 129.

Foucault는 사회의 총체적 자동체제는 새로운 형법의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규율, 훈련, 기억형성, 문서화, 시간계획 그리고 감시 등을 통한 신체 이용의 '정치적 경제학' 과 '정치적 해부학' 이 고문을 대치하게 된다. 즉 개인들의 육체와 정신, "이 양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변화 가능성"⁴²에 대한 치밀하게 계산된 영향력 행사가 고문을 대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평등을 지향하고 생산적이며 시간으로 계산된 구금이라는 단일 처벌 체제인 교도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⁴³ 또 가정, 학교, 병영, 공장 그리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전개된다.⁴⁴ "In der Strafkolonie"에서 죄과를 몸에 새기는 "12시간"(SE107)은 또한 이와 같은 다방면의 감시와 기록들의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사물'이 아니고 일종의 '자동체제'가 되어버렸다. 즉 "이것의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가 한명의 우두머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권력을 생산해내는 것은 총체적인 기구이다.(...)"⁴⁵ 미시물리학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체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한 명의 절대통치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절대통치자는 이 체제의 발전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는 전체의 가상적 중심체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의 권력은 새로운 횡적 권력관계와 힘의 관계들 속에 어느 정도 침전되어 있어서 도처에서 나타나는 권력행사의 계급적이고 남성우위적인 구조에서 다시 등장한다.⁴⁶ 물론 "In der Strafkolonie"에서 '옛 사령관'은 죽었지만 그는 자기의 권력기구를 남겨놓았다. "파발꾼들" 역시 자기들이 받들던 "황제"은 죽고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여전히 "복종의 서약"에 묶여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H33)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부과된 유일하고도 가시적이며 의식의 여지가 없는 법은 귀족인 것이다.(...)"(SE315)

사회의 자동체제 속에서는 기계 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afka는 노동자 사고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검열했었다. 그는 平削盤, 四角回轉軸, 切削機 대가리 등등에 대해 기록을 작성했었다.⁴⁷ 기계에서 생기는 작업사고는 그에게는 기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상징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In der Strafkolonie"의 고문기계는 문자 그대로 기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즉 이 고문기계는 기계의 알레고리로 되는 것

42) Ebd., S 28.

43) Ebd., S. 294.

44) Ebd., S. 173 ff.

45) Ebd., S. 229.

46) Gilles Deleuze und Felix Guattari: Anti-Ödipus, S. 308 ff.

47) Klaus Wagenbach: a. a. O., S. 70 ff.

이다.

기계 아래서의 생활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勞動對 賃金’의 공정한 等價交換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파는 노동계약은 상대방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자기는 생산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오는 힘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전에 만들어져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령부”라는 초기에 축적된 역사적 유산인 셈이다. 이러한 유산 속에서는 “법의 상황”은 여전히 “작지 않은 권력단위들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⁴⁸⁾이며, “판결”은 여전히 “권력히 약한 자들에 관해서는 이자들을 서로 화해하도록 강요하려는”⁴⁹⁾의지이다. 공정한 교환은 - Marx에 의하면 - 단지 “피상적인 과정일 뿐이고, 이 피상적인 과정 밑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 과정들에서는 개개인의 외형적 평등과 자유는 소멸하는 것이다.”⁵⁰⁾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견되는 사실은 노동자는 결코 ‘자발적 계약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도록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 바로 그가 자기의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⁵¹⁾ 지배의 유산이 냉혹하게 잉여가치 생산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생산자에게는 전혀 생소한 기계가 일생 동안 그의 몸에 ‘사형선고’를 기록한다. 아울러 1833년 영국의 한 공장에서 내린 조치에는 13-18세 소년들의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⁵²⁾ 12시간의 고문(SE108)은 어쨌든 무한정으로 반복되는 作業日을 지적하는 것 처럼 보인다.⁵³⁾

그러므로 “In der Strafkolonie”에서 죄와 법, 재판절차와 처벌 등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 역시 기계 아래에서의 생활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이율배반의 세계에서 피고의 “죄”는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SE 118), 이 “선고”의 전제조건들에 대한 소송절차는 배제된다. 제2의 천성(습관)의 영향력 하에서 주체들은 행동을 하며, 이들은 이미 주체로서 이 이상 더 행동규범과 법을 터득하지 못 한다. “피고들”은 전적으로 “몸에 세기”는 과정 속에서만 “처벌”, “선고” 그리고 “죄”를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문제되는 것은 Nietzsche가 정의했던 의미로서의

48) Friedrich Nietzsche: a. a. O., S. 817.

49) Ebd., S. 812.

50)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S. 159.

51) Karl Marx: Das Kapital, Bd.1, S. 319.

52) Ebd., S. 295.

53) Bert Nagel: a. a. O., S. 225 f.

54) Friedrich Nietzsche: a. a. O., S. 804.

“죄”, 즉 권력에 의해 定立된 “죄과들”이다.⁵⁴⁾ Deleuze와 Guattari는 “Anti-Ödipus”에서 “법이 독재정치를 막기 위한 외형적 보증으로 되기 전에는 그것은 독재자 자신의 발명품이었으며, 이법은 무한정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⁵⁵⁾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Nietzsche가 말하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추후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탐욕스런 기계의 하인이고, 자본을 재생산하는 가축이며, 무한한 죄의 심화”⁵⁶⁾이다. “죄인”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법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In der Strafkolonie”의 기계에서 처럼 법은 처벌이며, 이것이 선고와 규정을 몸에 새기는 것이다.”⁵⁷⁾ 이 명제는 이제 역으로 “In der Strafkolonie”에 다시 관련지을 수 있다.

“대위”는 여전히 “봉사”와 “보호”의 대상이고 또 “인사”라는 존경의 불문률도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SE105.)

이제 재판과정 자체에 대해 언급한다면, 流刑地에서는 결코 합법적인 심리들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하나의 의미, 물론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다. 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原理는 사회적인 규범들과 이것들의 법률규정집은 결코 의심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들 자체로서 정당화 과정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범행으로 규범체제를 危險에 빠뜨린 범인들에 대해서는 선고가 경침을 토대로 하지않고 선침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사회의 설립원칙으로 가지 되어 있는 재판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범법자에 대한 선고 뿐 아니라 더욱이 법률위반, 사회적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특히 재산에 관한 불법행위의 필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힘의 차이 체제로서의 법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죄과로서 간주되어야할 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절차는 소송의 결과가 원칙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추어야 하는 笑劇이 되는 것이다. 범법과 충성, 극단과 정상, 외적 강요와 내적 강요 등이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⁵⁸⁾

충성의 자기다짐 속에서도 처벌은 예상되어 있다. “In der Strafkolonie”에서는 그렇다면 특수한 경우의 범법과 처벌이 문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의 범법과 처벌, 즉 체제에 오래전부터 복종하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벌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가? “In der Strafkolonie”의 隱喻는 兩者, 즉 형법과 사회

55) Deleuze/ Guattari: Anti-Ödipus, S. 273.

56) Ebd., S. 327.

57) Ebd., S. 273.

58)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S. 117.

법, 특수한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작품에서는 권력이 입법, 기소, 변호, 판결 분야들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옛날의 독재체제, 환언하면 중세의 마력의 지닌 성직자 신분의 영주국가 그리고 절대주의 국가와의 관련성이 나타나 있다. Inge Seidler 역시 처형기구에서 “완전무결한 절대주의”⁵⁹⁾의 형상이 나타나 있음을 보고 있다.

본 작품에서는 많은 것이 “고문의 축제”를 암시하고 있다. 즉 독재자에 의해 지시된 힘으로서의 법체제의 시위, 전문용어들을 사용한다면 변호와 증거절차가 없는 육체적 고통의 통고와 실행, 낙인 혹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신체부위들의 파괴, 범행자의 제거 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규율, 훈련, 기억형성, 문서화, 시간계획 그리고 감시 등을 통한 신체 이용의 ‘정치적 경제학’과 ‘정치적 해부학’이 고문을 대치하게 된다. 즉 개인들의 육체와 정신, “이 양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변화 가능성”⁶⁰⁾에 대한 치밀하게 계산된 영향력 행사가 고문을 대치하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 죄과를 신체에 세기는 “12시간”은 또한 이와 같은 다방면의 감시와 기록들의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의 자동체제 속에서는 기계 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계에서 생기는 작업사고는 Kafka에게는 기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상징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In der Strafkolonie”의 고문기계는 문자 그대로 기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즉 이 고문기계는 기계의 알레고리로 되는 것이다.

기계 아래서의 생활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勞動 對 賃金’의 공정한 等價交換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파는 노동계약은 상대방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자기는 생산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오는 힘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전에 만들어져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령부”라는 초기에 축적된 역사적 유산인 셈이다. 통치의 유산이 냉혹하게 잉여가치 생산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생산자에게는 전혀 생소한 기계가 일생 동안 그의 몸에 ‘사형선고’를 기록한다.

59) Vgl. Bert Nagel: a. a. O., S. 245 f.

60) Ebd., S 28.

61) Max Weber: Die Typen der Herrschaft, S. 167 ff.

“Das Schloß”에서 봉건체제가 관료체제의 토대가 되었듯이 전 사령관의 체제는 진보적인 현 사령관 체제의 토대가 된다. 과거는 현재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즉 전통적 카리스마적 통치형태는 합법적인 것의 이면에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다.⁶⁰ “탐침가”는 피고의 죄가 아니라 “재판절차의 불공정성과 처형의 비인간성”을 “의실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러나 그의 強度가 약한 항의와 그곳으로 부터의 逃走는 “옛 사령관이 정해진 몇 년 후에 부활하리라”는 “예언”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형지의 세계는 현대사회에 숨어 있는 전혀 다른 법의 구조와 사회구조의 은유로, 즉 민주적이고 '인간적'이라는 현대사회의 X선 사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사회편입조치, 다방면에서 행해지는 감시, 실틈없이 계속되는 노동착취 방법 등등이 '처형기구'에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처형기구가 그 희생자를 일생을 두고 서서히 죽이는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I. Texte

A = Kafka, Franz: Amerika, hg. v. Max Brod, Frankfurt a. M. 1983

Br = Kafka, Franz: Briefe 1902 - 1924, hg. v. Max Brod, Frankfurt a. M. 1975

H = Kafka, Franz: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hg. v. Max Brod, Frankfurt a. M. 1983

SE= Kafka, Franz: Sämtliche Erzählungen, hg. v. Paul Raabe, Frankfurt a. M. 1992

II. Sekundärliteratur

Clastres, Pierre: Staatsfeinde. Studien zur politischen Anthropologie, Frankfurt a. M. 1976

Deleuze, Gilles: Sacher-Masoch und der Masochismus, in: Leopold von Sacher-Masoch: Venus im Pelz, Frankfurt a. M. 1968

Deleuze, Gilles / Guattari, Felix: Anti-Ödipus. Kapitalismus und Schizophrenie I, Frankfurt a. M. 1974

Deleuze, Gilles / Guattari, Felix: Kafka. Für eine kleine Literatur, Frankfurt a. M. 1976

Eco, Umberto: Das offene Kunstwerk, Frankfurt a. M. 1977

Foucault, Michel: Sexualität und Wahrheit. Der Wille zum Wissen, Frankfurt a. M. 1977

Foucault, Michel: Überwachen und Strafen. Die Geburt des Gefängnisses, Frankfurt a. M. 1977

Hobbes, Thomas: Leviathan, Stuttgart 1976

Lacan, Jaques: Die Familie, in: Schriften III, Orten 1980

Lévi-Strauss, Claude: Mythologica I. Das Rohe und das Gekochte, Frankfurt a. M. 1976

Marx, Karl: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Frankfurt o.J.

Marx, Karl: Das Kapital, 3 Bde., Berlin 1969

Nagel, Bert: Franz Kafka. Aspekte zur Interpretation und Wertung, Berlin 1974

Nietzsche, Friedrich: Werke in drei Bänden, hg. v. Karl Schlechta, München 1973

Richter, Helmut: Franz Kafka. Werk und Entwurf, Berlin 1962

Wagenbach, Klaus(Hg.): Franz Kafka. In der Strafkolonie. Eine Geschichte aus dem Jahre 1914. Mit Quellen, Abbildungen, Materialien und Anmerkungen von Klaus Wagenbach, Berlin 1975

Weber, Max: Die Typen der Herrschaft,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2 Bde., Berlin 1964z

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as Werk "In der Strafkolonie" von Franz Kafka

Kwon, O-Sang

In dieser Erzählung ist die Teilung der Gewalten in eine gesetzgebende, anklagende, verteidigende, richtende und vollziehende aufgehoben. Von diesem Gesichtspunkt aus betrachtet, kann man sagen, daß sich ein Bezug zu den frühen Despotien, den magisch-klerikalen Fürstentümern des Mittelalters und zum Absolutismus herstellt.

Vieles deutet hier auf das 'Fest des Marters', d. h. die vom Souverän angeordnete Demonstration des Rechts als der Macht, die Verkündung und Vollstreckung des Gesetzes ohne Verteidigung und Beweisverfahren, die Brandmarkung oder Zerstörung der mit dem Vergehen in Zusammenhang stehende Körperteile, die unproduktive Vernichtung des Täters.

In der neuzeitlichen Gesellschaft ist an die Stelle der Marter die 'politische Ökonomie' oder 'politische Anatomie' durch Disziplin, Dressur, Gedächtnisbildung, Verschriftlichung und Kontrolle getreten, die ökonomisch kalkulierte Einwirkung auf die Körper und Seelen der Individuen, auf das, was 'sie sind, sein werden, sein können'. Die 'zwölf Stunden' der Einschreibung in dieser Erzählung reflektieren die Erfahrung dieser allseitigen Kontrolle und Verschriftlichung.

Innerhalb der Gesellschaftsmaschinerie spielt die Maschine selbst eine zentrale Rolle. Der Arbeitsunfall an der Maschine mag zum Sinnbild für das Leben unter der Maschine überhaupt geworden sein. Damit wäre der Folter-Apparat dieser Erzählung auch ein Bild der Maschine im wörtlichen Sinne: die Maschine wird zur Allegorie der Maschine.

Das Leben unter der Maschine beruht nur scheinbar auf einem gerechten Äquivalententausch 'Leistung gegen Lohn'. Der Arbeitsvertrag, nach dem der Arbeiter seine Arbeitskraft frei verkauft, basiert auf einem vorausgesetzten Machtgefälle, dem Besitz an Produktionsmitteln einerseits und der Besitzlosigkeit andererseits. Dies ist das historische Erbe einer primären Akkumulation, einer vorangegangenen und nachwirkenden 'Kommandantur'. Das Erbe der Herrschaft geht in die versachlichte Herrschaft der Logik der Mehrwertproduktion ein. Ein 'Todesurteil' schreibt dem Produzenten die Maschine lebenslang auf den Leib.

Das System des 'alten Kommandanten' begründet durchaus das des liberaleren

'neuen Kommandanten', genau wie im "Schloß" das feudale das bürokratische begründet. Das Vergangene währt im Gegenwärtigen fort. D. h., traditionale und charismatische Herrschaftsformen bleiben hinter der Fassade des Legalen bestehen. Zwar hält der Reisende nicht die Schuld des Verurteilten, sondern die Ungerechtigkeit des Verfahrens und die Unmenschlichkeit der Exekution für zweifellos, aber sein müder Protest und seine Flucht beglaubigen die Richtigkeit der Prophezeiung, daß der Kommandant nach einer bestimmten Anzahl von Jahren aufstehen werde.

Man kann also die Welt der Erzählung "In der Strafkolonie" als Bild einer ganz anderen Rechts- und Sozialstruktur nehmen, nämlich als 'Röntgenbild' der modernen, demokratischen, 'humanen' Gesellschaft, deren Sozialisationsverfahren, deren allseitige Kontrollen und Normierungen, deren Methoden restloser Ausschöpfung der Arbeitskraft usw. sich zu einer 'Strafmaschinerie' zusammenschließen, die ihre Opfer lebenslang abtötet.